

슈틸리케호, A매치 2연전 25명 명단 발표

전북현대 모든 포지션 고르게 5명 태극전사 배출

유럽과 선수들 석현준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탁

최악의 경기력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슈틸리케호가 11월 A매치 2연전에 출전할 25명의 태극전사를 발표했다.

슈틸리케호는 11월 11일 오후 8시 친안 종합운동장에서 캐나다와 친선경기를 가진 후 1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즈베키스탄과 2018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을 펼친다.

슈틸리케호는 지금까지 2승1무1패로 승점 7점을 기록하며 1위 이란(승점10)과 2위 우즈베크(승점7)에게 뒤지고 있다.

조3위로 마감할 경우 B조 3위와 경기를 거친 후 북중미 팀과 대륙별 플레이오프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2위 우즈베크는 2018년 월드컵 진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현대에는 모든 포지션에 고르게 5명의 태극전사를 배출하며 단일구단 최다 국가

대표 배출 팀이 됐다.

골키퍼 권순태와 수비수 김창수 최철순이 선발됐고 미드필더의 이재성 김보경과 공격수 김신욱이 선발됐다.

전북전수의 다수 발탁은 카타르전과 이란전에서 조직력 문제로 공수 양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 메이저대회 3연패를 이끌어낸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자국리그의 1위팀 이던 FC바르셀로나 선수들을 주전으로 대거 발탁하며 조직력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바 있다.

유럽과 선수들도 석현준(트라브존스포트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탁됐다. 주장 기성룡(스완지시티)을 주축으로 이청용(크리스탈팰리스), 손흥민(토트넘), 지동원, 구자철(이상 아우크스부르크), 황희찬(찰스부르크), 박주호(도르트문트), 윤석

영(브뤼헤)가 명단에 올랐다. 중요한 일전에서 새로운 모험보다는 안정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수비라인은 불안함을 노출한 좌우풀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철순을 최후 선발했다.

다만 김기희 홍정호 장현수 확대휘 박주호 윤석영 등은 대체자를 찾지 못하고 전 명단과 발발 차이 없이 그대로 선발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23명보다 많은 25명을 선발했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다.

소속팀에서 전혀 경기 출전을 못하고 있는 박주호, 윤석영을 또 다시 선발한데 이어 자국팀에서 주전경쟁에서 밀린 이정현이 국가대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K리그 득점선수를 달리고 있는 정조국과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최상의 폼을 발휘하고 있는 안현범은 이점함에 밀려 후보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슈틸리케는 11월 8일 태극전사를 소집해 손발을 맞춰 예정이다.

○슈틸리케호 캐나다 평가전 및 2018년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 명단(25명)

▶GK=김진현(29·세레스 오사카) 김승규(26·빗셀 고베·이상 일본) 권순태(32·전북)

▶DF=김기희(27·상하이 선화) 홍정호(27·장수 수닝) 장현수(25·광저우富力·이상 중국) 홍철(26·수원) 확대휘(35·서울) 김창수(31) 최철순(29·이상 전북) 박주호(29·도르트문트·독일) 윤석영(26·브뤼헤·덴마크)

▶MF=이재성(24) 김보경(27·이상 전북) 남태희(25·레키야) 한국영(26·알가라파·이상 카타르) 기성룡(27·스완지시티) 이청용(28·크리스탈 팰리스) 손흥민(24·토트넘·이상 잉글랜드) 지동원(25) 구자철(27·이상 아우크스부르크·이상 독일) 정우영(27·충청리안·중국)

▶FW=황희찬(20·찰츠부르크·오스트리아) 이정현(25·울산) 김신욱(28·전북)

※대기명단=김동준(22·성남·GK) 김민혁(24·사간노스) 오재석(26·감바오사카·이상 일본·이상 DF) 권창훈(22·수원·MF) 석현준(25·트라브존스포르·터키) 황희조(24·성남·이상 FW)

/김민근기자

전북도지사배 보디빌딩대회 12일 개최

전북도내 몸짱들의 축제인 제1회 전라북도지사배 보디빌딩대회가 12일 완주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보디빌딩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보디빌딩협회 주관·주관하고 전라북도도와 완주군 전북체육회가 후원한다.

이번 보디빌딩 대회는 대학부 2체급, 마스터즈 2체급, 여자부 3종목 각 3체급, 남달남부 5체급, 남피지크 2체급, 남클래식 3체급 등 총 23체급의 경기가 진행된다.

전북보디빌딩협회 관계자는 "보디빌딩은 매력적인 스포츠를 넘어서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모든 스포츠의 기초체력운동은 보디빌딩으로 시작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성료

2008년부터 매해 가을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2016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돼 막을 내렸다.

국제 최고 권위 있는 대회로 성장한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는 세계랭킹 10위 안에 드는 남, 녀 선수 및 국제 엘리트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42km 오픈부, 21km 청년부, 21km 장년부, 21km 단체부, 6km 초등부, 6km 비경쟁 부문으로 나누어 우승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주시물러스스포츠연맹은 이번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찾아온 전 세계 각국의 선수와 가족, 동호인들을 약 1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닥터 스트레인지' 해외 개봉 첫 주 1000억

마블의 마법사 히어로 무비 '닥터 스트레인지'(감독 스킷 데릭슨)가 개봉 첫 주말 해외에서만 8600만 달러(약 982억원) 수입을 올리며 전 세계적인 흥행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 31일 북미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난 주말 전 세계 33개국에서 개봉, 86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나라는 역시 한국으로 18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영국(1110만 달러)이 2위였고 프랑스(570만 달러), 호주(490만 달러), 독일(480만 달러), 멕시코(460만 달러), 대만(430만 달러), 홍콩(320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해외 개봉 첫 주말 흥행 수입은 '헐크 맨'보다 49%,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보다 23%,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보다 1% 많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오는 4일 북미 현지에서 개봉하며, 같은 날 중국·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 등에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영화는 마블의 첫 번째 마법사 캐릭터인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버치)의 탄생을 다룬다.

기존 '어벤져스'의 영웅들이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켰다면,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의 힘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인물이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2018년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세 번째 시리즈 인피니티 워'에도 합류할 예정이어서 국내외 관객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뉴시스

"과분한 사랑 감사...정직하고 당당하게 내 길 갈 것"

올 하반기 가장 큰 성공작 '구름이 그린 달빛' 주연 박보검의 포부

"저희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랑받았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지 누가 아느냐' 지금 제가 받는 사랑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살 것이고 잊지 않을 겁니다."

배우 박보검(23)은 최근 자신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관심에 대해, "과분한 사랑, 더 노력하면서 연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마치 모범답안이라도 준비해놓은 듯 답했다. 박보검은 착하다라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정직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면 된다"고 했다. 큰 인기로 인해 앞으로 배우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냐는 물음에는 "믿음 잃지 않고, 중심 잘 잡고 가면 될 뿐"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종영한 KBS 2TV 월화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극본 김민정·임예진, 연출 김성운·백성훈)은 박보검 드라마였다.

박보검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이 작품은 특별한 게 없는 작품이 됐을지도 모른다. 드라마는 퓨전 로맨스 사극의 전

형성을 그대로 답습했지만, 박보검의 매력 덕분에 올해 하반기 가장 크게 성공한 작품이 됐다(최종회 시청률 22.9%).

박보검은 천진난만한 성격의 세자 '이영'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당연히 사랑을 이루는 데도 성공한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를 자신만의 매력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전까지 주연작 한 편 없는 이 신인배우는 이번 작품으로 김수현('해를 품은 달'), 송중기('태양의 후예')를 이을 차세대 드라마 스타가 됐다. 지난 19일 경북공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그의 팬사인회에는 3만여명의 팬이 몰리기도 했다.

"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아져서 기억하는 데도 한계가 있네요(웃음) 한 분 한 분 눈 마주치며 인사하고 싶은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려면 마음이 생기기 해요. 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경북공 행사 때 알았거든요."

박보검은 천진난만한 성격의 세자 '이영'이 온갖 어려움을 겪고(당연히 사랑

을 이루는 데도 성공한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를 자신만의 매력으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전까지 주연작 한 편 없는 이 신인배우는 이번 작품으로 김수현('해를 품은 달'), 송중기('태양의 후예')를 이을 차세대 드라마 스타가 됐다. 지난 19일 경북공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그의 팬사인회에는 3만여명의 팬이 몰리기도 했다.

첫 주연작이었음은 물론이고, 첫 사극이었다. 그럼에도 박보검은 신인배우들이 흔히 겪는 연기력 논란 같은 말과 엮이지 않았다.

뛰어나지는 않아도 그의 연기는 최소한 극과 배역에 어울리는 것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첫 주연을 맡고 초반 촬영 때에는 주연 배우로서 극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죠. 드라마는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배우들과 감독님 스타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풀



더라고요."

그는 이어 "지금 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장면들이 물론 있다"면서도 "최선을 다했고, 큰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